

2013 보육 예산

송신영 연구원

2013년도 보육 예산은 총 4조 1,778억 원으로 2012년 3조 999억 원에 비해 약 34.8% 증가하였다. 이는 보육 사업 전반에 걸친 지원 대상 확대 및 정책 확장에 따른 것으로, 양육수당의 0~5세 전 계층 지원과 0~2세 무상보육 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2013년도 보육사업은 1)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2) 보육지원 형태 다양화를 통해 보육 현실을 반영하고 보육품질 및 전달·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 들어가며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2013년 보육 예산을 4조 1,778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체 복지 예산인 41조 673억 원의 약 10.2%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34.8%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별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이 약 2조 4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크게 증가한 사업은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8.2% 증액되었다. 여기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예산안(2013. 1. 1.)을 기준으로 2013년도 보육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개

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 내용 및 예산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표 1〉 2011~2013 보육예산

단위: 백만 원, %

사업명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A) ¹⁾	2013년 예산안(B)	증감(B-A)	(%)
영유아보육료 지원	1,934,611	2,391,291	2,598,219	206,928	8.7
양육수당 지원	89,794	102,646	880,950	778,304	758.2
보육돌봄서비스	395,023	423,153	444,463	21,310	5.0
어린이집 지원	23,077	78,207	150,445	72,238	92.4
어린이집 기능보강	14,650	11,867	23,610	11,743	99.0

주: 1) 2012년 1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3년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2013, 1.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 원으로 최종 확정'.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 0~5세 보육료 지원 및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등이 이에 속한다.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2,598,219백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12년 2,391,291백만 원에 비해 8.7% 증액되었다.

2013년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표 2〉 2012~2013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 변경 내역

구분	2012	2013
만 0~2세	전 계층 지원 만 0세: 39.4만 원 만 1세: 34.7만 원 만 2세: 28.6만 원	좌동
만 3~4세	소득하위 70% 만 3세: 19.7만 원 만 4세: 17.7만 원	전 계층 지원 만 3세: 22만 원 만 4세: 22만 원
만 5세	전 계층 지원 만 5세: 20만 원	전 계층 지원 만 5세: 22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표 3〉 2012~2013 양육수당 지원 제도 변경 내역

구분	2012	2013
만 0~2세	차상위 계층 지원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36개월 미만: 10만 원	전 계층 지원 12개월 미만: 20만 원 24개월 미만: 15만 원 36개월 미만: 10만 원
만 3~5세	지원 없음	전 계층 지원 만 3~5세: 10만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지원 금액은 만 0세는 39.4만 원, 만 1세는 34.7만 원, 만 2세는 28.6만 원을 지원 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22만 원을 지원 받는다¹⁾(표2 참조).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기르는 자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2년까지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전 소득 계층,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양육수당 지원 예산은 880,950백만 원으로 778,304백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약 758.2% 증가한 수치이다.

양육수당의 지원 확대로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부모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3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 받는다.

1)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5세 보육료와 3~4세 보육료 중 일부(단가 인상분 및 소득 상위 30%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함.

4. 보육돌봄서비스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은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교직원, 방과후교사, 장애아통합교사,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고, 취약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업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보육교사가 휴가 및 보수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3년 예산 안으로는 444,463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2년 423,153백만 원에 비해 5% 증가한 수치이다.

주요 증가분은 국공립법인 인건비 단가 3% 인상에 따른 증액과 영아·장애아 전담 등 어린이집 인건비 대상이 11천명에서 11.5천명으로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시간연장형 교사 및 대체교사 지급 대상은 각각 13천 명에서 10천 명, 526명에서 500명으로 축소되었다.

5.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이 이에 포함된다. 2013년도 지원 예산은 150,445백만 원으로 2012년 78,207백만 원에 비해 72,238백만 원 증가하였다.

각 사업별로 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3년도 예산은 2012년 462억 원에서 1,058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교사 지원 금액이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는 월 5만 원에서 월 7.5만 원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²⁾.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는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이며, 시설 운영의 개선을 통해 정부미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수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교재교구비 연 1백만 원, 차량운영비 월 20만 원 지원되며,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이 2만1천 개소에서 18천 개소로 축소됨에 따라 감액되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11년 시범 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2013년에는 1,000개소에서 1,5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형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1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 3, 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대상자는 192천 명에서 152천 명으로 감소하였음.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은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취약 지역, 산업단지지역,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등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비 지원 등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포함된다. 2013년도 예산은 23,6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2년 11,867억 원에 비해 99% 증액되었다.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개소수가 2012년 10개소에서 2013년 75개소로 증가에 따른 것으로 23,610억 원 중 14,866백만 원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아전담 신축,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어린이집 환경개선, 장애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장비비 등은 지원 대상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다.

7. 기타

2013년도 보육정책의 추진 방향은 1)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하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2) 보육지원형태 다양화를 통해 보육 현실을 반영하고 보육품질 및 전달·관리체계 개선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5개 사업 외에 이용자의 관점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같은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보육사업 관리,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예산 규모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